

군산, 미래 신산업도시로 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성장하는 경제도시 조성 노력

군산시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미래 신산업도시로 진화해나감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신규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망강소기업의 평균매출은 53.1%(1,066억원), 고용은 36.6%(242명)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가산단의 공장 입주 및 가동업체수는 2018년 대비 각각 12%, 25%가 증가하는 등 산업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민선7기 이후 산업구조 개편 결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차전지 및 미래형 이동 수단에 이르기까지 산업분포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린수소 클러스터 및 새만금 RE100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도 원활히 추진 중이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더불어 지역 조선업체는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목표로 중소형·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및 대체연료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 시민참여형으로 추진했던 유상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12월 본격 가동이 시작됐고, 시

는 이를 통해 매월 23억원에 이르는, 전국 유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발전 수입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 대표회의 개최를 통해 '출산·육아 관련 지원사업', '백년대계 교육 지원 사업' 등 인구 감소 대응과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노사민정 대타협의 군산형 일자리의 안정적 추진과 노동환경개선·복지확충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더불어, 우리 지역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 계획이다.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 영농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농촌협약을 체결해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또한, 쌀에만 의존하

는 군산농업의 대전환을 위해 대규모 원예 생산단지를 조성, 강소자립농 2,000여명을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수제맥주처럼 수제 청주도 부활시키는 등 농수산업 기반 군산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 산업과 연계한 식품 산업 및 먹거리 관광과 연계를 구상 중이다.

수산업에도 수산물 유통 및 판매시설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기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수산물 어획, 유통 분야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수산물 개발로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2025년까지 수산물연구센터 및 30여개의 가공공장이 입주하는 새만금수산물가공종합단지의 기반시설인 '해수인·배수시설 조성사업'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고부가가치 수산물가공식품이 생산·판매될 수 있는 동북아 수출 거점 종합단지 조성에 한걸음 더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미래 신산업도시로 진화해나감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위기기구에 대한 발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발굴·모니터링 강화... '이웃애향돌봄단' 등 특화사업 추진

익산시가 위기가구 발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을 겪는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에 중점을 두고 '이웃돌봄, 카카오톡 전력·통신데이터, AI 활용' 등 인적 네트워크와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복지이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우선 다양한 채널의 인적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 중이다.

지역을 잘 아는 이웃으로 구성된 '우리마을 행복지킴이'는 29개 읍면동 주민 2,400여명과 협약기관 10곳이 참여하여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고위험 가구 인부 확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9개 읍면동 공동 지역복지특화사업 '이웃애향돌봄단'을 2023년 새롭게 추진한다.

취약계층 및 돌봄 사각지대 가구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상시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카카오톡 신고 채널인 익산 주민(Zoam-in)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해 위기가구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월 1천여명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11월말 현재 3,100여명이 가입, 현재까지 74건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를 진행해 선별된 2만 2천여명에게 유선 또는 방문으로 복지 사각지대 관련 설문 기초 조사를 한다.

시는 AI(인공지능)로봇, 전력 사용량 및 통신 데이터 패턴 분석 등 첨단 과학 모니터링시스템도 대폭 도입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쌀 내년 생산량 30%... 즉석밥·급식시장 판로확보

기업-농가-행정협력 고품질 벼 재배... 엄격한 품질관리 효과

대한민국 식품수도 익산시가 내년 쌀 전체생산량의 30%를 즉석밥 등 기업맞춤형 시장에 공급하면서 침체된 쌀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기업맞춤형 익산쌀 생산단지 3,850ha에 총계약물량 3만 7천여톤을 국내 대표 식품기업들과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해 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이는 익산 전체 쌀 생산량 11만9천여톤의 31%를 차지한다.

시는 쌀 소비는 줄어도 즉석밥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어 기업맞춤형 쌀 생산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넬스코리아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즉석밥 시장규모는 지난 5월 기준 4,6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2025년까지 약 5,2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고품질 벼재배 및 엄격한 품질관리와 공격적마케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 생산단지 계약을 높여나갔다.

재배면적은 지난해 3,050ha, 올해



3,360ha(110%), 내년 3,850ha(114%)로 매년 10%이상 증가했다.

총계약물량 규모도 올해 3만2,000여톤 520억원에서 내년 3만7,000톤 600억원 경제효과로 전년 대비 15%로 늘었다.

특히 즉석밥 시장위인 CI 햇반의 원료곡 공급 전국 1위에 이어, 본아베프(분축, 분도시락 등), 하림 즉석밥 등 계약면적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등 단체 급식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기업형 생산단지에서 재배하는 탐마루 친환경 쌀을 서울시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학교급식에 공급 중이다.

지난달 8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학교급식 공급에 선정돼 내년부터 연간 350여 톤을 서울시 소재 학교에 공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대표음원 '익산으로'... 커버공모전 당선

익산시가 지역 대표 음원인 '익산으로'를 자신만의 시각에서 재해석해 부르는 '내가 부른' 익산으로 '노래 커버 공모전'의 최종 수상자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에 익산을 더욱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음원으로는 익산 출신이자,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마크툼이 직접 작사·작곡 노래 등 프로듀싱하고 멜론, 지니 등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된 '익산으로'를 활용했다.

대표음원 '익산으로'를 개성있고 아

름다운 목소리로 재해석한 이번 공모전에는 최종 수상작으로 총 5편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마라는데로(대표 양정모)팀이 선정됐다. 4명이 한팀으로 구성된 마라는데로는 수준 높은 가창력과 완성도 그리고 높은 유튜브 조회수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우수상에는 서익상님의 '내 고향 익산으로'와 김효진님의 '방안에서 익산으로' 2편, 장려상에는 구분육님의 '익산으로'와 허수경님의 '歌多익산으로' 2편이 선정됐다. 우수상과 장려상 4편 모두 가창력뿐만 아니라 신선하다는 평을 얻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군산시는 지난 2일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청구민원 담당자 및 인허가 담당자 등 주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군산시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소통교육센터 원장 김선에 강사를 초청, '함께 행복한 관계를 위한 고객 서비스'라는 주제로 공무원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고객의 욕구 이해를 통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 인정 및 존경 욕구 충족을 위한 감성서비스의 주요성 인식, 인정 커뮤니케이션 스킬 활용을 통한 고객 만족 등으로 구성됐으며, 강의 및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산시보건소, 비대면 출산육아교실 종료

군산시보건소는 지난 2일 비대면 출산육아교실이 임신부들의 호응 속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출산육아교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의 대면 출산육아교실이 2020년부터 점점 중단되면서 실의활동 감소 등으로 인한 임신부·출산부의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진행됐다.

보건소는 육아교실을 통해 임신·출산 후 모두 수유 등 임신부터 출산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론 및 태교마사지·요가·친환경 아기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했다.

교육 대상자들은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통 감소법, 호흡법 필요한 강의였는데 유익했습니다."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3년에도 산모들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 낳는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